

스쿨존 위험 호소에도…외면하는 지자체



단속카메라커녕 신호등도 없어
불법주차에 과속차량 ‘쌍쌍’
북부경찰, 연제초교 앞 단속
2시간 동안 10대나 적발

어린이 교통사고 지난해 459건
광주 195개교 시설 개선 요청
예산 부족 등 이유 ‘팔짱만’

13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충효동 광주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 앞 공부방(지역아동센터)에 가기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스쿨존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탓에 아이들과 교사의 얼굴에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사고위험이 큰 곡선구간과 맞물려 있는 이 횡단보도는 과속단속카메라는커녕 신호등도 설치돼 있지 않아 등·하교시간이면 교사들이 모두 동원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스쿨존임을 알리는 도로 표시 등도 오래되고 벗겨져 운전자들이 인식조차 하긴 힘든 상태였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앞길은 제4수원지나 광주호 주변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외지 차량이 많고, 과속도 많이 하는 도로인 탓에 학생들이 혹시나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하다”며 “과속단속카메라가 안되면 최소한 신호등만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교통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거절만 당했다. 조만간 다시 한번 건의할 생각”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12일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광주시 북구 연제동 연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은 광주지역 초등학교들이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으로 지정됐는데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교통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사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광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생색내기식 캠페인성 홍보’에만 집중할 뿐 정작 어린이의 안전시설 설치에 뒷전이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특수학교 인근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605곳(지난달 기준)이다.

교육청이 지난해 말 각 학교에 지시해 파악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3곳 중 1곳 수준인 총 195개 학교가 안전시설 개선(보수)을 요청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이 학교 앞 스쿨존에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스쿨존내 과속 운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1~3시까지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연제초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단속을 진행한 결과, 2시간 동안 차량 10대가 적발됐다. 단속장소 전방에 과속단속을 예고하는 안내문까지 설치했지만, 차량들의 질주는 이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이 같은 과속 차량 관련 사고 등을 우려해 스쿨존 내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해마다 예산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올해 책정한 스쿨존 시설 보수 예산도 10억원에 불과하다.

5개 지자체로 나누면 2억원 꼴로, 주로 겨울철에 생긴 포트를 보수,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등으로 쓰면 동이 난다.

이마저도 의견수렴, 실시설계 용역, 업체선정 등을 거치면 신학기가 지난 올 여름께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1대당 5000만원에 달하는 단속카메라 설치도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예산타만 하고 있는 사이, 애꿎은 어린이들만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478건이 발생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592명이 다쳤다. 2017년에는 459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54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광주는 교통안전수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마저 안고 있다.

송권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학교들의 요구 사항에 비해 예산이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전체를 동시에 개선할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한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 SNS서 여학생 성적 비하 물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들통

학교측 조만간 징계위 열기로

광주 한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성폭력 관련 사안인 만큼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남학생들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단체 채팅방에서 나눴던 15일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퇴한 한 학생회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여성 생식기를 색깔로 표현해 비하하는 성희롱적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날 밤 여자 임원들과 술을 먹은 후 다음 날 2명의 여자 임원에 대해 ‘설마 XX와 2대 1 윤간?’, ‘한 명 더 있으니까 2대 2 스와핑 아니냐’는 등 상식밖 대화가 이어

졌다.

이런 내용은 지난 8일 한 여성 총학생회 임원이 다른 남성 임원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을 발견해 사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게시물을 올린 제보자는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언행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며 “이 경악할 사건이 널리 퍼져 공론화돼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과 학생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현재 이 학교 총학생회 관련 내용과 제보 등은 모두 삭제됐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성폭력 관련 사안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암체 동물병원

광양서 ‘개장수’에 유기견 넘기려다 적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이 유기견을 ‘개장수’에게 넘기다 적발됐다.

13일 광양시와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광양을 한 동물병원이 보호하던 유기견 5마리를 개농장에 분양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행인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10일간 공고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개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견들을 분양받은 사람은 개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물병원측은 광양시가 경위 파악에 나서자

‘본인이 키우겠다고 해서 준 것이다. 개장수인 줄 몰랐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양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개농장에 유기견을 분양한 처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병원이 2006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현장에서 폐쇄했다.

케어 관계자는 “병원은 시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으면서 유기견을 ‘개고기’로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명품 수제담배?…유해성분 10배나

검찰, 허위 광고하며 전국 판매 일당 19명 적발

검찰이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담배의 성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배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mg~1.66mg, 타르 5.33mg~15.13mg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형뉴스

트럭 운전자 추돌사고 사망

13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순환도로 요금소에서 김모(53)씨가 몰던 5t 트럭이 통행료를 내기 위해 멈춰 서 있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근처 화단으로 돌진했다.

사고 충격으로 김씨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t 화물차 기사는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서 훔친 차 무면허 운전…서울서 팔려다 ‘쇠고랑’



○…광주에서 훔친 차를 서울에서 팔기 위해 무면허로 350km를

운전한 20대가 쇠고랑.

○…13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김모(28)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골목에 주차돼있던 벤츠 승용차 안에서 K5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인근에 주차돼있던 K5를 서울 금천구까지 운전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지난달 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광명과 광주 도시에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태블릿PC, 노트북, 현금 등 2493만원 상당을 훔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골라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 · 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 · 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기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접별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 감정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